



“박지성은 한국의 베키엄”

‘인사이드 맨유’ 7월호 “추앙의 대상”
퍼거슨 감독 결단력 필요할때 제일 먼저 찾아



잉글랜드 프로축구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공식 전문잡지 ‘인사이드 맨유’가 지난 시즌 박지성(28)의 팀 공헌도를 높게 평가했다.
인사이드 맨유는 최근 발행된 7월호를 통해 프리미어리그 3연패를 달성한 맨유 선수들을 상세히 소개하는 코너에서 “박지성이 포지션 경쟁자들에게 관정승을 거두었다”고 총평했다.
이 잡지는 또 “체력과 결단력, 기술이 필요할 때 퍼거

슨 감독이 제일 먼저 찾았던 선수가 바로 박지성”이라면서 “한국에서 박지성은 데이비드 베컴이나 1960년대 비틀스와 비슷한 추앙의 대상”이라고 전했다.
1980년대 맨유에서 활약했던 미키 토머스가 인사이드 맨유와 인터뷰에서 “박지성을 보면 관볼 기계를 떠올리게 한다. (계속 뛰어나다면서) 모든 동료의 패스 상대가 되어준다”고 평가했다.
이 잡지는 이와 함께 2008-2009 시즌 ‘박지성 최고의 순간’으로

맨유 입단 이후 박지성이 100번째 공식 경기에 출전했던 지난해 12월 토트넘 홋스퍼와 원정 경기를 선정하기도 했다.
한편 인사이드 맨유 7월호는 프리미어리그 우승을 기념해 증편 특대호로 제작됐으며 시즌을 정리하는 특집 기사로 소장 가치를 높였다.
/연합뉴스

히딩크-박지성 4년만에 사제의 만남

29일 시각장애인 전용축구장 준공 만찬 참석

‘산소 탱크’ 박지성(28,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하 맨유)이 옛 스승인 ‘승부사’ 거스 히딩크(63) 러시아 축구 대표팀 감독과 4년 만에 만난다.

박지성은 오는 29일 오후 7시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리는 히딩크 감독 초청 만찬에 참석한다. 이 자리에는 정몽준 국제축구연맹(FIFA) 부회장과 조중연 대한축구협회장, 홍명보 20세 이하(U-20) 축구대표팀 감독, 이영표(32·도르트문트)도 동석할 예정이다.
박지성과 히딩크 감독이 만나는 것은 박지성이 PSV 에인트호번(네덜란드)을 떠나 맨유로 옮겼던 지난 2005년 7월 이후 4년 만이다.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4강 신화를 창조하는데 앞장섰던 박지성은 히딩크 감독을 따라 에인트호번에 입단했으나 히딩크 감독의 만류로 뿌리치고 맨유에 입단해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성공시대를 열었다. 그러나 이후 돌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만날 기회가 없었다.
히딩크 감독은 지난 2월 헬싱키 지휘봉을 잡았지만 맨유가 FA컵 준결승에서 에버턴에

달미를 잡혀 탈락하고 헬싱키 유해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결승 진출에 실패하면서 사제대결은 불발됐다. 헬싱키는 FA컵에서 우승했고 맨유는 FC 바르셀로나(스페인)에 0-2로 무릎을 꿇어 2년 연속 우승에 실패했다.

박지성은 자서전인 ‘멈추지 않는 도전’에서 “(히딩크 감독은) 내 속에 숨어 있던 잠재력을 현실로 끌어내 주셨다”면서 히딩크 감독과 만남이 자신의 인생에서 전환점이 됐다고 설명했다.
박지성은 허정무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 주장을 맡아 한국의 7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 쾌거를 이루는 데 앞장섰고 히딩크 감독은 러시아 대표팀 사령탑으로 남아프리카 월드컵으로 가는 직행 티켓을 기대하고 있다.

한편 히딩크 감독은 시각장애인 전용 축구장인 드림필드 3호 준공식 참석을 위해 오는 25일 입국해 27일 박지성과 만날 예정이었지만 아버지가 노환으로 세상을 뜨면서 입국 일정을 변경했고 박지성과 만남도 이를 미뤘다.
/연합뉴스



잇단 실패로 고전하고 있는 KIA 타이거즈 선수들이 24일 SK 와이번스와의 경기에서 시뮬레이션 수비훈련을 하고 있다.

힘 받는 日 힘 풀린 火

집중력 좋아 공·수 탄탄 10승 3패



무기력에 실책 쏟아져 4승 7패

‘두 얼굴의 KIA 타이거즈’

23일 무등경기장 야구장에는 밤 늦게까지 공 때리는 소리가 요란했다. 홈 6연전 첫 경기였던 SK 와이번스와의 시즌 10차전에서 4개의 안타를 때려내는 부진 속에 1-11로 크게 지자 야간 특별 타격훈련이 강행된 것이다.
그동안 경기 후 개별적으로 훈련이 진행된 적이 있기는 하지만 선수단 전원이 불려나온 것은 올 시즌 처음이다. 최고참 이종범도 이날은 예외가 아니었다.
휴식일인 월요일을 기점으로 해서 일요일과 화요일 KIA 선수들의 경기력은 판관이다. 타격도 타격이지만 선수들의 ‘집중력’이 코칭스태프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고 있다.

홈 6연전 첫경기 SK에 대패하자 야간 특별훈련

KIA는 지난 20일 일요일 롯데 자이언츠와의 원정 경기에서 1회부터 세 개의 홈런 포를 가동하면서 7-4로 승리를 거뒀다.
앞선 두 경기에서 잇단 수비 실수와 무기력한 플레이로 2연패를 하면서 조범현 감독은 3연패까지 각오했었지만 초반부터 거침없는 공세를 펼친 KIA는 연패를 끊고 광주로 돌아왔다.
하지만 일요일 사직구장을 중흥 무진했던 KIA는 하루 휴식 뒤 열린 화요일 경기에서 시종일관 무기력한 플레이로 SK에 1-11로 대패했다. 실책도 3개가 쏟아졌다.

올 시즌 KIA의 일요일 승률과 화요일 승률은 극과 극이다. 일요일 경기에서 10승3패로 0.769의 승률을 기록하고 있는 KIA는 화요일에는 4승7패를 거두는 데 그치며 승률이 0.364에 불과하다.
경기 내용도 좋지 않았다. 화요일 7번의 패배중 역전패가 4번이나 됐고, 5월12일 한화와의 원정경기에서는 1-10으로 완패를 당했다.
일요일만 되면 팔팔 날아다니는 KIA 선수단이지만 화요일 아쉬운 플레이가 속출하면서 연승 분위기가 번번이 끊기고 있다.

KIA는 5월 마지막 날 LG와의 원정경기에서 승리를 거두며 올 시즌 첫 ‘쌍승이 3연승’으로 분위기가 최고조에 올랐지만, 다음 경기였던 6월2일 화요일 경기에서 두산에 2-9로 패하면서 4연승 고지를 밟는데 실패했다.

23일 경기전 화요일 부책 집중력이 떨어지는 선수단의 분위기를 우려했던 조범현 감독은 또 다시 펼쳐진 ‘화요일의 졸전’을 보고 야간 특별 훈련에 이어 24일 엔트리를 대거 교체하며 굳기 잡기에 나섰다.
내야수 김신민·김종국의 자리에 이현곤·김병철이 부름을 받았고, 투수 임준혁과 진민호를 대신해 오준형과 김영수가 1군에 합류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이천수, 중동·독일 이적설

원소속 페예노르트 추진
전남 드래곤즈 떠날 판

네덜란드 프로축구 페예노르트 소속이지만 전남 드래곤즈에서 임대 선수로 뛰고 있는 이천수(28)가 중동 지역 프로팀이나 독일 팀으로 옮길 지도 모른다고 박항서 전남 감독이 밝혔다.

박항서 감독은 “페예노르트가 아랍권과 유럽권 리그의 복수의 팀과 이천수에 대한 이적 협상을 벌이고 있다고 들었다”고 24일 말했다.

사우디아라비아리그의 알나스트와 아랍에미리트(UAE)리그 팀, 독일 분데스리가 팀 등이 이천수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항서 감독은 “이천수가 이적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우리도 그 상황을 알고 있지만 (이적 부분은) 이천수와 에이전트가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천수가 실제 거부권을 갖고 있다 해도 거부권을 행사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천수가 전남과 임대 기간이 끝나 페예노르트로 돌아갈 경우 ‘패션죄’로 출전 기회를 얻지 못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전남은 임대계약이 내년 1월 끝난 뒤에도 임대계약을 연장할 계획이었다.
/연합뉴스



그러나 페예노르트가 이천수를 이적시키면서 발생할 이적료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최근 타 구단과 협상이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은 거액의 이적료가 부담스러워 이천수를 완전 영입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연합뉴스

“도대체 왜?... 합숙이라도 해야 하나”

조범현 감독, 미숙한 플레이 속출에 시뮬레이션 연습

“합숙이라도 할까?”
KIA 타이거즈 선수단의 미숙한 플레이가 속출하면서 조범현 감독의 심기가 불편하다. 전남 야간 특별 훈련에 이어 엔트리에서 4명의 선수를 교체하면서 분위기가 쇠신에 나선 조 감독은 24일 경기전에는 투수들까지 총 동원해 시뮬레이션 수비연습을 시켰다. 덕아웃에서 훈련을 지켜보던 조 감독은 맘에 안 드는 부분이 있으면 자리를 박차고 그라운드로 쫓아가 한 소리를 하는 등 악역을 자처했다.

조 감독은 “뭘 하는지 선수들 물어 천근 만근 무겁다”며 “기본적인 플레이도 엉망이고 합숙이라도 할까보다”는 말로 불편한 속내를 드러냈다.
선수단의 타격 부진이 길어지는 것도 불만이다. 타격 컨디션이라는 게 늘 한 걸 같을 수는 없지만 이렇게 침체가 길어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다.
무엇보다 오기있는 플레이가 아깝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조 감독은 “기회가 주어지면 이를 잡기 위해서 악착같이 해야하는 데 오기들이 부족하다”며 “올스타 브레이크를 앞두고 가장 중요한 고비인 데 이리다 순위 떨어지는 것 아닌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어떻게 오더를 작성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한 스타 내수인 조범현 감독.
결국 이날 홍세환-김상현-최희승으로 클린업 트리오를 구성했고, 2군에서 복귀한 이현곤과 루키 안치홍을 키스톤 콤비로 내세웠다. 타선 전면에는 이종범-장성호가 테이를 세터로 나섰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